

한전, 신·재생 에너지 집중투자

발전 자회사 5사 4500억원 투입 ... 풍력·태양광·소수력 건설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가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약 4500억원을 투자한다.

동서발전이 201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진도-해남지역(울돌목)에서 조력발전사업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남부발전은 444억원을 투자해 2007년까지 강원도 태백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또 발전 5사가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기술과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개발 사업에 각각 127억원, 14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이 2006년 10월 착공할 태백 풍력발전단지는 설비용량이 20MW로 2MW급 발전기 10기가 건설된다.

동서발전은 2006년부터 울돌목에 9만kW급 조류발전소 건설에 착수한다. 1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1000kW 시범발전소 건설비 96억원을 포함해 2000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남동발전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내 1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10월 가동한다. 또 삼천포 화력발전소 해수를 이용한 3000kW급 소수력발전소도 2006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3MW급 양양 풍력발전소 건설을 2006년 5월 완공할 예정이고 20MW급 양구 풍력단지 개발도 530억원을 들여 자원을 조사중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발전소 내 2200kW 소수력설비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의 투자계획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한전의 경영실적이나 주가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투자금액도 크지 않고 풍력, 태양광 등은 아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5/03/30>